

##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공임순\*

1. 잡지 '희망'을 둘러싼 오해와 정정
2. 월간 『희망』과 희망사의 방계잡지들
3. '낮익은 새로움' 전후 레짐의 반공과 오락의 기묘한 결합과 변주
4. 잡지 '희망'을 통해 본 1950년대의 시대상-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요약

이 글은 1951년 7월 전시에 창간되어 전후에 전성기를 누린 월간 『희망』이 갖는 시대사적 맥락과 의미를 전후 레짐(postwar regime)의 설명코드로 규명하고자 했다. 희망사의 다른 방계잡지와 달리 월간 『희망』은 『주간희망』과 '희망'의 제호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 글은 월간 『희망』을 중심으로 『주간희망』도 참조하여 이를 잡지 '희망'으로 표현해보았다.

전후 레짐은 '준전시-전시(전쟁)-전후'로 이어지는 분절과 연쇄를 가리키기 위해 필자가 상정한 용어이다. 이 전후 레짐은 식민지배자이자 패전국인 이웃 일본이 한국전쟁의 특수에 힘입어 1955년에 '이제 전후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과 대비되는 뒤늦은 시차를 겪게 되는 1950년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의미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글로벌한 냉전과 뒤늦은 시차의 지역적 전후가 교차했던 1950년대의 이 전후 레짐 속에서, 반공과 재건 담론 및 원조와 검열의 통치성은 출판자본의 영리 추구와 길항

---

\*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연구소 연구원

하는 모순과 긴장을 빚어냈다. 잡지 '희망'은 1958년 정간과 속간을 거듭하기까지 1950년대의 특정한 시대상을 공유하며 몇 차례의 변곡점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대표적인 대중오락지로 간주되어온 월간 『희망』의 변모와 갱신은 이 전후 레짐과 관련하여 새롭게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논점이다.

이를 위해 1장과 2장에서는 지금까지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그 전모와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잡지 '희망'에 대한 실증적 기초 작업이 행해졌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월간 『희망』에 초점을 맞추어 코너 간 배치와 내용을 다루었다. 여기서 북한 발 신남철의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신태양』과 『여자계』와 더불어 월간 『희망』을 그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 이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의 적극적 유포자로 낙인찍힌 월간 『희망』은 한편으로 영화 코너들을 활용한 독자 대중의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선망과 욕구를 자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시 수행을 위해 증대된 미군과 미군 기지의 현존이 야기한 전후의 문제들을 여성 섹슈얼리티로 매개하고 전시하게 된다. 잡지 '희망'은 1950년대 대중지의 매체 지형을 공유하면서, 전후 한국사회의 급격한 아메리카니즘을 이룬바 지식인과 파워엘리트들의 견문과 시찰 등의 고급문화와 여성 섹슈얼리티의 과잉과 연루된 질 낮은 아메리카니즘의 하위문화로 분절하는 매체 지향과 전략을 선보였다. 월간 『희망』을 필두로 한 잡지 '희망'의 이러한 변모상이야말로 전후 레짐과 연동된 1950년대 대중지의 존재방식이기도 했다는 점을 이 글은 4장에서 결론 삼아 제시하였다.

(주제어: 월간 『희망』, 『주간희망』, 전후 레짐, 반공과 재건 담론, 생활의 아메리카니즘, 에로 공세, 혼혈아, 미군과 미군기지, 여성 섹슈얼리티, 유엔미담, 전후파 여성)

## 1. 잡지 '희망'을 둘러싼 오해와 정정

이 글은 잡지 '희망'을 1950년대의 맥락에서 살피고자 한다. 잡지 '희망'이 1950년대의 특징적인 일면을 드러내 주리라는 유력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잡지 '희망'의 발간과 관련해서이다. 잡지 '희망'의 발간을 논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은 잡지 '희망'이 월간과 주간으로 나누어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월간은 『희망』으로 주간은 『주간희망』의 제호를 달고 시기를 달리해 출간되었기 때문에, 두 잡지를 변별해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희망사의 여타 방계잡지와 달리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은 '희망'의 제호를 공유하며 그 차별성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은 잡지 '희망'으로 함께 범주화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잡지 '희망'의 발간을 살펴보면, 잡지 '희망'은 1950년대를 관통하는 위상과 의미를 점한다.

잡지 '희망' 중 전시의 혼란을 딛고 첫 포문을 연 것은 월간 『희망』이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의 이른 시기에 월간 『희망』이 창간된 것이다. 월간 『희망』의 이러한 이른 창간은 이 잡지를 둘러싼 오해와 억측을 피할 수 없게 했다. 예컨대 1954년 7월 창간 3주년 기념특집호는 이 오해와 억측이 비단 이후 연구자들의 몫만은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창간 3주년을 기념하는 특집호에 걸맞게 대단히 특색 있는 화보로 채워진 「찬연(燦然)! 3년간을 걸어온 『희망』지의 발자취」는 이른바 창간호부터 3주년에 이르는 표지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 자축의 의미를 더한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은 양해가 덧붙여진 결호의 존재였다.

“백만 애독자 제현의 뜨거운 성원으로 본지는 제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지가 걸어온 자취를 보여드리오니 부디 웃으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제3호 및 제8호는 보관지(保管誌)가 없어 여기

전시하지 못하오니 널리 양해”<sup>1)</sup>해 달라는 편집자의 변은 발행사인 희망 사조차도 전권을 보유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제3주년 기념 특대호의 야심찬 기획이라 할 「찬연(燦然)! 3년간을 걸어온 『희망』지의 발자취」는 몇몇 호를 누락한 채로 표지 사진을 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월간 『희망』이 전시의 특수성과 맞물려 제작과 발행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애를 먹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월간 『희망』의 발행과 관련하여 실물보다는 기억과 인상에 의존한 사후적 언급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의 한 방증이 최근까지도 월간 『희망』의 발간 시기를 둘러싼 저마다의 입장차이다. 대표적인 서지학자인 김근수를 필두로 하여 한국잡지협회와 최덕교, 고정일, 잡지의 시대상을 재구한 천정환 등에 이르기까지 월간 『희망』의 발간 시기는 그야말로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여 왔다. 가령 최덕교와 고정일, 천정환은 월간 『희망』의 창간을 1951년 5월로 잡고 있는 반면, 김근수와 한국잡지협회는 6월로 간주한다. 종간과 관련해서는 김근수와 한국잡지협회는 1962년 2월(통권 12권 2호)을 반면 고정일과 천정환은 1963년을 적시하면서도 1963년 7월의 구체적인 일자를 제시한 고정일과 다르게 천정환은 1963년에 종간되었다고만 말하고 있다.<sup>2)</sup> 전시의 혼란상과 병행하는 월간 『희망』의 이른 창간이 실물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더딘 연구 성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중완은 “서울에서 발행되던 『동아』, 『조선』, 『서울신문』 등 주요 일

1) 『『희망』지의 발자취』, 월간 『희망』, 1954.7, 15-16쪽.

2) 김근수, 『출판계의 새 출발시대의 잡지개관(1950.6.25~1960.4.19)』, 『한국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 영산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3, 228쪽과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 100년』, 한국잡지협회, 1995, 24, 312쪽 및 고정일,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780쪽과 최덕규, 『한국잡지백년 제3권』, 현암사, 2004, 132쪽;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96, 100쪽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간지들도 피난지에서의 속간은 엄두도 못 내고 지방지인 『부산』, 『국제신문』 등만이 중앙지의 대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15일 만에 4,6 배판 160여 면의 조판을 끝내고 다음 생산과정을 거쳐 『희망』의 창간호<sup>3)</sup>인 7월호를 발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월간 『희망』의 초창기 발행 여건은 순탄치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초창기 잡지 발행의 곤경을 염두에 두면서, 월간 『희망』의 전모와 실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실물에 입각한 서지 조사와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 일차적인 서지 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한, 1950년대에 월간 『희망』, 나아가 잡지 '희망'이 지닌 위상과 의미도 제대로 규명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이러한 측면에서 2016년도 엄동섭의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는 주목에 값한다. 그는 희망사의 잡지들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던 실물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월간 『희망』의 발행 호수와 목록을 처음으로 체계화해서 제시했다.<sup>5)</sup> 그의 성과에 힘입어 필자는 세미나를 함께 했던 '희망'잡지 연구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더해 아래와 같은

3) 김종완, 『난중출판잡기(亂中出版雜記)』, 『출판문화』, 1986.6, 10쪽. 김종완은 다른 회고에서도 피난지 부산에서 잡지를 내는 일은 거의 기적을 낳는 일과 같다고 피력한 바 있다.

4) 『주간희망』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월간 『희망』은 일차문헌을 손에 넣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발행사인 희망사도 불안정한 전시상황으로 인해 전권을 갖추지 못했음은 전술했던 바와 같다. 산재한 자료와 개인 소장자를 비롯한 소장처의 접근 제약 및 결호의 존재는 월간 『희망』 연구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을 아우르는 전체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에 일조했으면 한다.

5)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2016. 월간 『희망』과 관련해 개인 소장자의 것을 포함해 그가 확보한 호수들과 1953년 희망사가 보관하지 않았음을 밝힌 제2호, 제3호, 제8호를 교차해보면, 그 중 제2호가 공통적으로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엄동섭이 미확인한 실물은 제4호, 제7호, 제9호, 제13호이다. 필자와 같이 세미나를 진행했던 '희망'잡지 연구팀은 개인 소장자의 실물은 거의 접근하지 못했다. 이는 세미나 내내 아쉬운 지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발행 목록 도표를 작성해 보았다. 표지 사진으로 월간 『희망』의 발자취를 더듬은 제3주년 기념호인 1954년 7월의 통권 호수(제36호)와 제4주년 기념호인 1955년 7월의 『편집후기』에서 밝힌 통권 호수(제48호)를 교차하고 비교한 결과를 포함해서이다.<sup>6)</sup>

〈월간 『희망』의 발행 목록 도표〉

월별 발행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51							1	2(X)	3(X)	4	5	6
1952	7		8(X)	9	10	11	12	13	14	15	16	17
1953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954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1955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1956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1957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1958	78	79	80	81	82	83						
1959				84	85							
1962	86	87	88									

\* 는 1954년과 55년 『희망』 3주년·4주년의 통권호수 확인. X는 희망사가 보관하지 않은 잡지

위 발행 목록 도표는 월간 『희망』이 1951년 7월에 창간되어 1962년 3월호로 중단된 1950년대의 산물이었음을 명확히 한다. 전시 피난지인 부산에서 잡지로서는 최초로 창간된 월간 『희망』은 보다시피 1958년과 1959년에 휴간을 거듭하기 전까지 1952년 3월호를 제외하고는 매호 거

6) 본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도표는 『희망』과 『주간희망』 별책으로 나온 것은 제외했다. 『희망』 별책으로는 1955년 8월에 나온 『해방십년』이 있고, 1956년도 『주간희망』을 상·하권으로 특별 제작하여 한정판으로 1957년 11월에 발간한 합본 『주간희망』이 있다. 최미진, 『『주간희망』의 도전과 매체 전략』, 『1950년대와 잡지 『희망』』, 대중서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쪽은 정기간행물 135권에 합본 2권을 합쳐 총 137권의 『주간희망』이 발간되었음을 꼼꼼한 자료 조사로 드러내준다.

르지 않고 꾸준히 발간된 그야말로 1950년대와 호흡을 같이 한 잡지였던 것이다. 1955년을 기점으로 잡지시장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었지만, 월간 『희망』은 『사상계』와 『여원』과 더불어 독자들이 선호하는 3대 대중지로 꼽힐 정도로 1950년대의 특정한 시대상을 공유했음을 위 발행 목록 도표는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sup>7)</sup> 월간 『희망』의 이러한 대중지 선도는 “『희망』이 나와서 잘 되어 나간다고 하니까 이를 송두리째 모방하려는 몇몇 잡지가 나왔고 또 대중지가 1, 2종 나’온다고 하는 1954년 9월 『권두언』의 자리를 빌린 이무영의 쓴 소리로 표출되기도 했다. 소금이 잘 팔리니 너도나도 소금을 팔아 결국 공멸하고 만 옛 일화에 빗대어 그는 “『여자대학생의 정조』가 잘 팔린다니까 좋은 작가들도 통속, 도색에 눈을 팔”고 “『젓꼭지문학』이 인기가 있다니까 솟제 치마를 걷고서 허벅다리를 내놓으려 든”<sup>8)</sup>다는 세대풍자를 곁들인 일침을 가했던 셈이었다. 그의 이러한 신랄한 비판은 한편으로 유사잡지의 출현에 대한 월간 『희망』의 견제 심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때를 전후해 『희망』과 유사한 패턴의 『청춘』, 『아리랑』, 『명랑』, 『삼천리』, 『신영화』 등이 차례로 창간된 것을 보더라도 무리한 지적만은 아니었다. “송두리째 모방하려” 든다는 과도한 수사를 걷어낸다 해도, 1950년대의 잡지시장을 선도한 대중지로서 월간 『희망』이 점한 위치와 입지는 견고했다고 할 수 있다.

월간 『희망』을 축으로 잡지 ‘희망’의 다른 한축을 지탱한 것은 『주간희망』이었다. 『주간희망』은 1955년 12월 26일 통권 제1호로 창간되었다. 『주간희망』을 잡지 ‘희망’의 한 범주로 다루려는 이유는 전술했다시피 ‘희망’이라는 제호를 공유함으로써 월간 『희망』의 자매지로서의 성격

7) 조풍연, 『단행본·잡지 등 범출판계』, 『출판문화』, 1975.6, 5쪽.

8) 이무영, 『권두언-소금장사 군상(群像)』, 월간 『희망』, 1954.9, 27쪽.

을 부각시켰다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곧 『주간희망』이 월간 『희망』과 상통하는 동질성 속의 차이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월간 『희망』을 축으로 『주간희망』을 잡지 ‘희망’의 한 계열체로 위치시킨다고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간희망』이 월간 『희망』의 어떤 속성들을 공유하면서도 차별화되는 지점일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 속의 기능 분업은 지금까지 월간 『희망』을 유사잡지인 『아리랑』, 『명랑』, 『삼천리』 등과 횡적으로 비교하는 데서 더 나아가 종적인 기능 분업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월간 『희망』과 마찬가지로 『주간희망』의 발행 목록 도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간희망』의 발행 목록 도표〉

월 별 연 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55												26(1)
1956	2(2)	6(7)	5(11)	2(15)	4(19)	1(23)	6(28)	3(32)	7(37)	5(41)	2(45)	7(50)
	9(3)	13(8)	12(12)	13(16)	11(20)	8(24)	13(29)	10(33)	14(38)	12(42)	9(46)	14(51)
	16(4)	20(9)	19(13)	*	18(21)	15(25)	20(30)	17(34)	21(39)	19(43)	16(47)	21(52)
	23(5)	27(10)	26(14)	20(17)	25(22)	22(26)	27(31)	24(35)	28(40)	26(44)	23(48)	28(53)
	30(6)			27(18)		29(27)		31(36)			30(49)	*
1957	4(54)	1(58)	1(62)	5(67)	3(71)	7(76)	5(80)	2(84)	6(89)	4(93)	1(97)	6(102)
	11(55)	3(59)	8(63)	12(68)	10(72)	14(77)	12(81)	9(85)	13(90)	11(94)	8(98)	13(103)
	18(56)	15(60)	15(64)	19(69)	17(73)	21(78)	19(82)	16(86)	20(91)	18(95)	15(99)	20(104)
	25(57)	22(61)	22(65)	26(70)	24(74)	28(79)	26(83)	23(87)	27(92)	25(96)	22(100)	27(105)
			29(66)		31(75)		30(88)				29(101)	
1958	3(106)	7(111)	7(115)	4(119)	2(123)	6(128)	10(131)	10(133)	19(135)			
	10(107)	14(112)	14(116)	11(120)	9(124)	13(129)	25(132)	25(134)				
	17(108)	21(113)	21(117)	18(121)	16(125)	20(130)						
	24(109)	28(114)	28(118)	25(122)	23(126)							
	31(110)				30(127)							

숫자는 발행일, ( )은 통권호수, \*는 수요일-금요일 체재 변환 및 창간1주년(통권호수 제53호) 총목차 게재

위 발행 목록 도표는 『주간희망』이 1955년 12월 26일 통권 제1호로



창간되어 1958년 5월 30일 통권 제127호까지 규칙적으로 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1958년 6월부터 한 호를 거르기 시작해서 7월과 8월은 주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격주 발행의 형태가 되고 만다. 그러다 결국 9월 19일 제135호를 마지막으로 『주간희망』은 중단되었다. 이는 월간 『희망』이 1958년 7월부터 휴간하기 시작한 것과도 맞물린다. 월간 『희망』은 1959년 4월 통권 제84호로 속간이 되지만, 『주간희망』은 1958년의 고비를 끝내 넘지 못하고 폐간의 길을 걷는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출판사의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주간희망』보다 월간 『희망』을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사의 욕구가 더 컸다는 사실이다. 『주간희망』의 폐간을 무릅쓰고서라도 월간 『희망』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했던 희망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실례이다.

2장과 3장에서 다시금 논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거듭되는 속간과 정간은 월간 『희망』의 편제 변화를 이끌면서, 다음과 같은 재출발의 의지마저 무위로 돌리게 된다. “모험에 가까운 현대적인 시설의 완성”을 위해 “일시적인 후퇴나 휴간을 각오”했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무절차 등”으로 “만 2년 동안이나 계획”이 지연되었고 “두 차례의 혁명으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불황으로 본사 운영면의 막대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바야흐로 거족적인 재건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올바른 국민정신의 향상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코자 속간하기”<sup>9)</sup>로 했다는 1962년 1월의 재출간에 대한 의지는 종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이 당해 3월호로 끝을

9) 김종완, 『속간에 즈음하여』, 월간 『희망』, 1962.1, 39쪽. 재출발을 다짐하는 이 속간 호에 재건운동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특별계재로 실렸다는 점은 월간 『희망』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족계획과 관련된 죄담이 김종완의 발언에 이어 첫 번째 기사로 배치되고 있다. 월간 『희망』의 성격과 위상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 휴간과 속간이 갖는 경제적이고 사회정치적인 맥락 또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맺게 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잡지 ‘희망’을 1950년대의 맥락에서 논하되 월간 『희망』을 중심으로 하여 『주간희망』을 참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장은 이를 위한 일차 서지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1장의 기초 작업을 토대로 이 글은 1950년대와 잡지 ‘희망’의 특정한 상관성을 논하는 설명 코드로 전후 레짐(postwar regime)을 상정한다. 전후 레짐은 ‘준전시-전시(전쟁)-전후(戰後)’로 이어지는 분절과 연쇄를 틀 짓는 코드이자 식민지 배자이자 패전국인 이웃 일본이 한국전쟁의 특수에 힘입어 1955년에 ‘이제 전후는 끝났다’고 선언했던 것과 대비되는 한국사회의 뒤늦은 시차의 지역적 전후를 가리키는 용어로 필자가 택한 것이다.

글로벌한 냉전과 뒤늦은 시차의 지역적 전후가 교차했던 1950년대의 이 전후 레짐 속에서, 전시에 창간되어 전후에 전성기를 누린 월간 『희망』을 필두로 한 잡지 ‘희망’의 변모상이 자리한다. 반공과 재건 담론 및 원조와 검열의 통치성과 출판자본의 영리 추구가 길항했던 1950년대의 특정한 매체 지형은 특히 월간 『희망』에 쏟아진 저속함과 통속성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했는데, 이 글은 이러한 1950년대의 매체 지형을 ‘낮익은 새로움’의 견지에서 접근해보려 한다. 전후 레짐과 연동된 이 ‘낮익은 새로움’은 잡지 ‘희망’을 위시한 1950년대 대중지의 매체 지형을 관통했음을 이 글은 되짚고자 하는데, 이는 잡지 ‘희망’에 한한 특성이 아닌 1950년대 대중지의 존재방식이기도 했다는 점을 이 글은 중요한 문제의 식으로 제출코자 한다.

## 2. 월간 『희망』과 희망사의 방계잡지들

잡지 '희망'의 발행자로 희망사의 창립자이기도 한 김종완의 회고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붉은 서울에서의 3개월간의 생활을 통하여 자유의 소중함과 자신의 강인한 인내력을 재발견한 나는 피난지 부산에서 20대란 젊음을 밑천으로 새 시련에 비관, 출판계에 뛰어” 들었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신문사에만 종사했던 나는 출판에 대한 기본상식조차 없는 문외한”(10쪽)으로 백지상태에서 월간 『희망』을 발로 뛰어다니며 만들었다는 고난에 찬 창간비화를 소개한다. 김종완이 잡지 기념호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회를 피력한 적은 있지만, 그 외 출판과 관련된 회고담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이 글 3장과 연관해서 도강파가 아닌 잔류파로서 그의 전시와 전후 경험과 인식이다. 이러한 개인적 체험에 기댄 공적 지향성은 잡지 '희망'의 편집 방향과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그는 신문사에 종사했던 햇병아리 출판업자였다는 사실이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그는 적수공권으로 출판업계에 뛰어 들어 희망사를 차리고 월간 『희망』의 창간호를 혼자 제작하다시피 했다. 이는 한편으로 초창기 월간 『희망』의 성격을 알려주는 발언이자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참조하여 잡지를 기획하고 제작 및 유통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 '희망'잡지 연구팀이 별도의 자리를 빌려 행한 김종완의 사위 전재호와 나눈 인터뷰가 도움이 될 것이다.

희망사에 입사했다가 이후 혜원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전재호는 '희망'잡지 연구팀과 나눈 대화에서, 김종완이 학업상의 이유는 아니지만 해방 전 일본에 한동안 체류했다고 한다.<sup>10)</sup> 이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

는 잡지 '희망'의 발행에 끼친 일본 잡지계의 영향 관계를 열어두고자 함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잡지계는 1920년대 다이쇼(大正)기를 지나면서 매체 르네상스를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타 전문지 못지않게 대중지가 보통선거권의 실시와 함께 정치대중을 독자대중으로 만들었고, 대중지의 전범이라 할 『킹』도 창간되었다. 사토 타쿠미(佐藤卓己)는 『킹』의 창간으로 대변되는 이 매체 르네상스기를 '킹의 시대'라고 명명한 바 있었다. '킹의 시대'가 상징하는 이 매체 르네상스기는 이후 일본 잡지계에 지속적인 효력을 미쳤음을 그는 또한 지적하고 있기도 한데,<sup>11)</sup> 전중(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전후를 잇는 이 매체 지형의 연속과 변용은 김종완의 도입과 일본 잡지계의 동향이 지닌 상호 연관성을 유추할 하나의 강력한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1950년대의 매체 지형을 잡지연쇄의 기업화로 접근한 이봉범의 탁견을 살리는 한편으로 이의 선례가 되는 『킹』의 고단샤(講談社)의 잡지연쇄의 기업화는 이른바 희망사의 잡지연쇄를 설명해줄 좋은 참조점이다.<sup>12)</sup> 아래 그림은 이러한 『킹』의 고단샤와 『희망』의 희망사의 잡지연

10) 인터뷰는 2016년 4월 17일 북카페 (1984)에서 진행했다. 인터뷰어는 공임순, 홍순애, 최배은이고 인터뷰어는 김종완의 사위분인 전재호 씨였다. 그는 기간은 명확치 않지만 김종완이 일본에 체류하다가 돌아왔음을 전해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를 머물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위 본문의 논거가 보다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말이다.

11) 사토 타쿠미(佐藤卓己), 『『キング』の時代』, 岩波書店, 2002. 그는 『킹』의 연구가 선악을 판정하는 매스미디어의 윤리학이 아니라 이에 도전하는 존재론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킹의 시대'라는 명명에는 통상적인 다이쇼 데모크라시, 쇼와 파시즘, 전후 민주주의기의 연대기적 측면만이 아닌 연속과 변용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12)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2010은 1950년대의 두드러진 잡지출판시장의 변화로 잡지연쇄의 수익 창출 구조를 꼽는다. 잡지연쇄전략의 구사로 독자적 재생산기반을 구축한 개인출판자본이 존립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킹』의 고단샤와 흡사한 일면이다. 『킹』의 고단샤 역시 노마세이지(野間清治)

쇄의 기업화를 비교한 것으로, <그림 1>은 사토 타쿠미의 책에서 원용한 『킹』의 고단샤의 잡지연쇄이고 <그림 2>는 필자가 1960년대까지를 기준 삼아 매핑(mapping)한 희망사의 잡지연쇄의 양상이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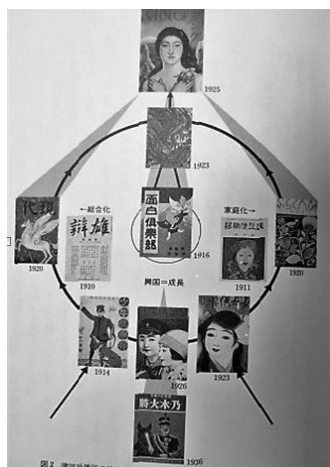
아래 <그림 1>은 고단샤가 이른바 『킹』을 중심으로 한 여타의 방계잡지들로 그 기능적 분업화를 해가며 일종의 잡지왕국을 만들어갔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사토 타쿠미에 의하면, 가장 상단에 위치한 『킹』 창간호의 표지사진은 출판시장의 대중화를 리드한 여성잡지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여성'인물을 전경화한 『킹』 창간호는 이미 출판시장에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여성잡지를 벤치마킹한 것이었음을 그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sup>(134)</sup> 이와 연관해서 <그림 2>의 가장 상단에 놓인 월간 『희망』도 창간호의 표지로 '여성'인물을 내세우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는 1952년 희망사에서 창간한 『여성계』의 표지화와 비교해 봐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고단샤가 잡지왕국의 명성을 『킹』을 축으로 도모하려 했던 것과 동궐에서 희망사도 월간 『희망』을 중심으로 잡지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려 했음을 아래 그림은 예증해준다. 따라서 1950년대의 매체 지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타사 동종 잡지들과의 횡적인 경쟁 못지않게 이 종적인 자사잡지들 간의 역할 배분과 연계이다. 어느 선까지 잡지사의 특색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차별화로 그 외연을 넓혀갈 것인지가 1950년대의 잡지연쇄의 기업화를 결정짓는 중요 관건이었다는 말이다. 문어발식 확장은 이 방계잡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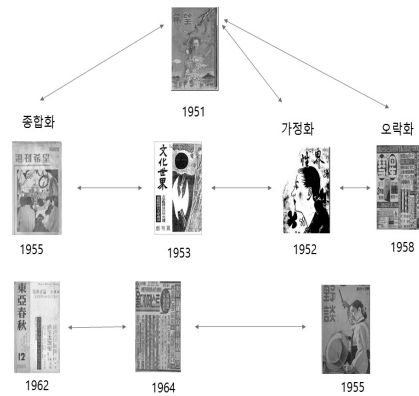
라는 개인출판자본으로 시작해서 출판왕국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 월간 『희망』을 포함한 희망사의 방계잡지들은 1960년대 초인 『올다이제스트』까지로 한정했다. <그림 1>에서 표시되지 않지만 『킹』은 『후지』를 거쳐 다시 『킹』으로 제명을 바꿔 간행되다가 1957년 12월에 중단되었다. <그림 1>은 사토 타쿠미, 『『キング』の時代』, 岩波書店, 2002, 111쪽을 옮긴 것이고, <그림 2>는 잡지 표지와 신문 광고를 출처로 필자가 도상화한 것이다.

들 간의 관계 설정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일 간 잡지시장과 시대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킹』의 고단샤 계열 방계잡지들과 월간 『희망』의 희망사 계열 방계잡지들의 포진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1〉 『킹』의 고단샤 잡지들



〈그림 2〉 월간 『희망』의 희망사 잡지들

위 (1)과 (2)의 그림에서, 『킹』의 고단샤 계열 방계잡지들에 비해 희망사가 예외적으로 손을 대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잡지였다. 소위 고단샤와 같은 잡지왕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잡지가 갖는 상당한 비중을 생각한다면, 희망사의 이러한 학생잡지에 대한 비(非)관여 원칙은 잡지연쇄의 기업화에서 중요한 한축을 결여한 것이 된다. 이를테면 〈그림 1〉의 고단샤의 경우 『유년구락부(幼年俱樂部)』를 비롯해 『소년구락부(少年俱樂部)』와 『소녀구락부(小女俱樂部)』는 유년-(청)소년-어른의 성장단계가 반영된 최말단의 포섭 전략에 해당한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러한 (유)소년과 학생잡지의 분화는 고단샤의 흥국=성장의 잡지이념과 맞물려 그 최하부에 속하는 (유)소년과 청소년층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외연 확대의 핵심 회로가 된다. 어려서부터 고단

샤의 잡지를 읽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고단샤의 주력지인 『킹』을 읽는다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이와 같은 저변 확보는 전중과 전후를 거쳐 현재까지 고단샤를 지탱시키는 물적 토대가 되었다면, 희망사는 상대적으로 이를 결여한 채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이쇼의 매체 르네상스기를 거치며 사세를 키웠던 『킹』의 고단샤와 희망사간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할 것이다. 지역적 전시와 전후의 특수성이 매개된 열악한 매체 환경을 딛고, 희망사는 <그림 2>에서처럼 문예·시사·오락·여성잡지들로 잡지연쇄를 도모해간 셈이었다.

그렇다고 희망사가 학생잡지와 전혀 무관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월간 『희망』 1955년 6월의 두 페이지에 걸친 화보는 학생잡지의 대명사격인 학원사와 공동야유회 장면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sup>14)</sup> 특별히 '학원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학원』을 통해 학생잡지의 선두주자를 자부했던 학원사와 희망사간의 이러한 긴밀한 유대는 필자와 편집진들을 교환하는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한국잡지협회를 창립하며 대형도소매서점의 황포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sup>15)</sup> 따라서 위 그림에 더해 희망사의 개별 범위를 넘어선 1950년대의 잡지사간 분업 체제까지 감안한 더 폭넓은 매체 지형도가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생잡지를 제외한 희망사의 매체 지형도에서, 월간 『희망』을 중심으로 가정화를 지향한 『여성계』와 시사에 중점을 둔 종합화의 『주간희망』 및 창간 8개월여 만에 총 6호를 내고 단명한 문예(문학)화의 『문화세계』는 지속적인 견인과 분화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여기서

14) 『망중(忙中)의 일일한(一日閑)! 광릉 옛 숲을 찾아』, 월간 『희망』, 1955.6, 16-17쪽.

15)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 45년사』, 한국잡지협회, 1998, 105쪽. 이와 얽힌 사건의 전말은 이 책을 참조할 수 있다.

월간 『희망』은 창간호의 표지화를 통해 인상적으로 시현했다시피 여성 잡지를 모델로 한 대중화의 기초 아래 한편으로 문예(문학)화를 다른 한편으로 당대적 화제와 시사성을 추구하는 종합지로 갱신과 변모를 거듭해갔다. 이는 월간 『희망』에 대한 기존의 일의적 규정이 갖는 문제성을 환기한다. 즉 월간 『희망』이 비록 대중지로 일관했다 하더라도, 그 성격과 체재는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월간 『희망』은 외부 조건 및 환경과 조응하는 가운데 희망사의 방계잡지들과 위상을 재조정해가는 몇 차례의 두드러진 변곡점들을 보여주게 된다. 1장에서 전술한 총 88호에 이르는 월간 『희망』의 간행호수 동안 판형과 지면 및 지족의 변화가 수반된 두드러진 변곡점들은 아래와 같다.

월간 『희망』의 편집 노선과 체재 변화

통권호수	자체 표방한 잡지 노선	비고
1951년9월(3호)	문예와 오락의 잡지/4.6배판	표지
1951년11월(5호) /1952년1월(7호)	대중종합잡지	편집후기/신문광고
1953년8월(25호) /11월(28호)	명실상부한 대 국민지	표지/편집후기/ 신문광고
1954년1월(30호)	한국 최대 최고의 위풍을 갖춘 대중지	표지(신년특별호)/ 편집후기
1955년11월(52호)	독자를 위한 독자의 잡지/국판으로 개정	표지(혁신특대호)/ 편집후기
1957년4월(57호)	영화와 취미의 오락잡지/4.6배판으로 개정	표지(신춘혁신호)/ 편집후기
1957년9월(74호)	호화대화보의 대중오락잡지	표지(혁신호)/독자 의 소리
1957년10월(75호)	스릴과 로맨스로 충만된 오락지의 결정판	표지
1958년1월(78호)	건전한 대중교양지(종합지)/국판으로 개정	표지(혁신신년호)/ 사고
1959년4월(84호)	흥미와 교양의 대중잡지	표지
1959년5월(85호)	국내외 종합다이제스트	표지
1962년1월(86호)	원색화보촬영	표지(속간신년호)/ 화보

위 표에 따르자면, 초창기 월간 『희망』은 “문예와 오락잡지”를 내걸고



문예 중심의 대중지로 시동을 걸었다. “잡지가 계몽적·문화적 가치로 서만 인식되던 관점에서 상품적 가치라는 또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1950년대 잡지 지형의 변화를 이끈 선구자로서 월간 『희망』은 이두용의 지적처럼, “경영면에서도 최초로 성공한 대중지”<sup>16)</sup>였던 셈이었다. 김종완은 이 경쾌한 출발을 일러 “1권당 3천원의 『희망』지는 발행 5일 만에 (창간호) 5000부가 다 매진”(11)되었음을 전하고 있기도 하다. 창간호부터 ‘여성’인물을 표지화로 그 상품가치를 어필했던 월간 『희망』은 “당신의 인생행로에 감격과 미소를”<sup>17)</sup>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수식어를 탈피해 1951년 9월호에 이르면, “希望”과 영어명 “HOPE”를 표제로 “문예와 오락의 잡지”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달라진 편집 체재를 과시하게 된다. “최소한도 이십만 독자를 목표 삼아 일체의 약조건을 무릅쓰고 돌진”<sup>18)</sup>하겠다는 다짐은 이 “문예와 오락잡지”를 가치로 대중지의 첫째 요건이라 할 독자들의 향방에 보다 깊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이십만 독자”는 향후 ‘기십만에서 수백만 독자들’<sup>19)</sup>을 오가는 월간 『희망』의 고무줄 같은 독자 상정의 신호탄이 되어 1952년 7월 『희망지 창간 1주년에 제하여』의 어느 한 개인이나 권력, 어떤 정파의 이용물이 아닌 “독자주의에 입각한 잡지”<sup>20)</sup>의 선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출발선상에 문예와 오락의 혼종과 교배의 초창기 지향성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16) 이두용, 『현대한국출판사 1945~2010』, 문예출판사, 2015, 187쪽.

17) 「목차」, 월간 『희망』, 1951.7.

18) 「사고」, 월간 『희망』, 1951.9, 98쪽.

19) “기십만 잡지”라는 표현은 월간 『희망』 1953년 1월호 「편집후기」, 90쪽에서 찾을 수 있고, 이것이 이백만인의 잡지로 뺨뺨기가 일어난 것은 1953년 8월의 신문광고를 통해서였다. 이후 “백만의 희망 애독자”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월간 『희망』 1955년 1월 「여적」, 234쪽이 그러하다. 기십만에서 (이)백만 독자로 표현의 과잉이 뒤따랐던 데는 서울 환도와 맞물린 전후 『희망』의 전성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 김종완, 『희망지 창간 일주년에 제하여』, 월간 『희망』, 1952.7, 12쪽.

하지만 이러한 초창기 전략과 노선은 어찌 보면 부득이한 측면이 컸다. 왜냐하면 잡지 발행의 제일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 수많은 필진들의 원고 청탁과 수집이 역으로 피난지의 특수한 여건에 힘입어 손쉽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문인, 화가 등 인사들이 하릴없이 단골 다방 몇 군데에 모여 하루 종일 대기하다시피 앉아”(10-11) 있는 기현상이 연출된 데 따른 결과였다. 초창기 월간 『희망』은 대구를 기반으로 한 『신태양』과 나란히 이 피난지의 특수성과 결부된 유사한 출발을 보여주게 된다. 김종완이 밝힌 “집필자는 물론 그 내용면에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게 했”(11)던 배경에는 이 전시의 특수한 사정이 가로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를 회고하는 자전적 책인 『1950년대 그 폐허의 문학과 인간』에서, 고은은 두 피난지 부산과 대구가 지닌 풍경을 일러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었다. 다방에서 글을 쓰고 바라크에서 책을 읽는 고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른바 “바라크 체제”는 “신문기자 잡지기자 군인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문화적 생활”<sup>21)</sup>에 빠져들게 했다는 것이었다. “1950년대의 청춘군상은 거의 센터멘털 자니”가 되어 이들을 압도하는 “문화적 분위기”(312)에 휩쓸려 군인 같은 문인, 문인 같은 군인, 문인 같은 기자들이 뒤섞인 전시 피난지의 독특한 풍경을 자아냈다고 그는 술회한다. 서울의 대체지로 화한 두 피난지 부산과 대구는 이러한 문학 지망생들의 보고가 되어 부산의 『희망』과 대구의 『신태양』의 이대 대중지의 탄생지가 되었다. 전시의 특수성과 맞물린 이러한 신문과 잡지기자 및 군인과 문인들의 혼재가 매체 간 혼종과 교배에 더해 초창기 월간 『희망』을 틀지었던 문학과 문예의 그야말로 특화를 낳았던 셈이었다. 누구랄 것도 없는 문학 지망생의 전시 감수성을 배경으로 초창기 월간 『희망』

21) 고은, 『1950년대 그 폐허의 문학과 인간』, 민음사, 1973, 310-312쪽.

은 “문예와 오락의 잡지”를 표방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월간 『희망』과 함께 전시에 창간되어 전후에 전성기를 구가한 『신태양』과 『학원』도 이러한 초창기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학과 문예의 특화에 기댄 초창기 대중적 성공을 발판으로 월간 『희망』은 신문과 잡지기자들을 전진 배치하는 대중종합지로 차츰 그 체계와 형식을 갖추어갔음을 위 표는 여실히 드러내준다.

1952년 7월에 창간되어 1953년 임영신에게 판권이 넘어간 여성잡지 『여성계』의 이양<sup>22)</sup>과 서울 환도 및 1953년 7월 『문화세계』 등의 잇따른 창간은 월간 『희망』을 “명실이 상부한 대 국민지”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문예(문학) 중심의 『문화세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월간 『희망』은 문학과 문예란의 축소 대신 『문화세계』와는 차별화되는 편집 방침으로 증면을 통한 지폭의 대거 확장을 꾀했다. 증면에 상응하는 이 지폭의 확장은 1953년 7월의 내용 풍부와 염가주의의 천명에 이어 1953

22) 김종완, 『희망지 창간 일주년에 제하여』, 월간 『희망』, 1952.7, 12쪽에서 김종완은 월간 『희망』 창간 1주년을 맞아 “동란 이후 급속도로 논락(論落)의 길을 걸어온 여성계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을 자부하면서 『여성계』 창간호”의 발간을 알린다. 하지만 야심차게 출발한 『여성계』는 1년여 만에 판권이 임영신에게 넘어가고 만다. 『여성계』 판권 이양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Memo”, *Korea Program P-61 Media Publications Womens World*, Box P-061, The Asia Foundation, Hoover Institution Archives에 담겨 있다. 날짜와 횟수에서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1952년 가을 『희망』을 발간한 발행사, 즉 희망사는 『여성계』 간행 3회 만에 편집주간이었던 조경희에게 판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발행권을 넘겨받은 조경희는 임영신과 함께 1953년 서울에서 은행 돈을 빌려 이 잡지를 다시 간행하기 시작했다고 이 문서는 전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대기가 버거워지자 1955년 루이스 임(임영신)이 아시아재단에 지원을 요청했고, 아시아재단은 잡지 내용에 별 특색이 없을뿐더러 『여원』에 비해서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이 지원을 거절하게 된다. 김종완은 창간한지 얼마 안 된 『여성계』 판권을 넘기게 된 이유를 임영신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실상 재정적인 문제가 깊이 관계되어 있었음을 이 문서는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년 8월에는 “이백만 인의 국민잡지”로, 나아가 1953년 9월과 11월에는 “훌륭한 내용이 되게 하는 데뿐만 아니라 훌륭한 체재, 교재가 되는데 있어서도 단연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문을 해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올바르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명실이 상부한 대 국민지”<sup>23)</sup>로서의 위용을 독자들에게 과시하게 했다.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대 국민잡지로 거듭나기 위한 월간 『희망』의 편집 방침은 일단 한문을 대신한 한글의 사용과 염가주의 및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들의 게재였다. 서울 환도와 어울린 이러한 편집 체재의 변화는 계층과 지역, 학력과 성별을 넘나드는 통합잡지로 그 위상을 재조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유년, 소년, 소녀, 부인, 학생, 노동자로 세분화되었던 독자층을 ‘국민’으로 융합”(146)하고자 했던 『킹』의 국민잡지와 방향성까지도 합치되는 일면이다. 이를 위해 월간 『희망』은 대 국민잡지를 기치로 “쉽고 올바르게 흥미롭게”를 자신의 모토로 삼는 대중종합지의 면모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대 국민잡지로의 위상 변모는 1953년 11월부터 저명인사들을 활용한 권두언 체제를 1956년 2월 까지 이어가도록 했다. 임영신, 갈홍기, 이기봉 등의 정부 고위급 관료에서부터 신익희, 주요한 등의 야당 거물급 인사 및 박종화, 백철, 이상백, 이하운 등의 문화계 인사와 홍종인 등의 언론계 인사들이 고루 배치된 화려한 진용과 면면이었다.

1954년 11월 지면의 대폭적 증가와 실생활 잡지의 강조는 11월의 230면에서 12월의 232면, 이후 300여 면으로 확장일로를 걸었다. 특집화보인 “세계의 은막계를 움직이는 명성(明星)들”<sup>24)</sup>과 같은 할리우드 여배우

23) 『여적』, 월간 『희망』, 1953.11, 118쪽.

24) 『세계의 은막계(銀幕界)를 움직이는 명성(明星)들』, 월간 『희망』, 1955.9, 16-18쪽. 이에 앞선 1955년 7월호에서는 화보는 아니지만 ‘본지 창간 제4주년 기념특별수록’으로 『세계명성백인집』을 16페이지에 걸쳐 실고 있기도 하다. 1955년을 지나면서, 연예란

의 사진과 만화의 증가 및 야담, 실화와 르포, 가장 대중적으로 히트한 금설희와 한하운의 수기와 인터뷰 및 방담과 단독회견으로 대표되는 독점취재의 코너들이 차용되거나 고안되었다.<sup>25)</sup> 코너의 기술이라고 불릴 만한 이 다양한 꼭지들은 전후 월간 『희망』의 전성기를 뒷받침하는 대중지의 체계가 미국의 원조에 힘입은 인쇄기술의 향상과 함께 정비되고 진화되어갔음을 알려주고 있다.<sup>26)</sup> 1955년 4월 송지영이 『권두언』의 자리를 빌려 『희망』의 편집주간 취임 소회를 밝힌 것과 때맞추어 발행자와 주간을 겸했던 기존의 일원 체제는 발행자와 주간 및 편집장을 분리하는 이원 체제로 탈바꿈했다.<sup>27)</sup> 이 시기는 월간 『희망』의 자매지인 『주간희망』의 1955년 12월 26일자 창간과도 맞닿아 있었다.

“좋은 잡지는 좋은 독자가 낳는다”고 하는 1955년 11월의 월간 『희망』의 “독자를 위한 독자의 잡지”<sup>28)</sup>는 “신문 같은 잡지”<sup>29)</sup>를 표방하며 창간

의 급증은 더욱 두드러진다.

- 25) 금설희와 한하운의 수기가 월간 『희망』의 대표적인 히트작이었다는 사실은 애독자들의 편지에서 확인된다. 한하운은 1955년 4월부터 「나의 슬픈 반생기」를 금설희는 1956년 4월부터 「어느 고아의 수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애독자들은 한하운과 금설희의 주소를 문의하여 편지와 엽서, 선물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여기에 적극 호응했다. 이러한 독자의 실제 행동을 겸한 참여는 잡지를 함께 읽는다는 공동성과 일체감을 높이는 매체 전략과도 맞아떨어져 특히 월간 『희망』은 대중오락지를 표방한 시기에 이 수기와 실화 류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
- 26) 1952년 10월 20일 한국잡지협회의 발족은 용지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한국잡지협회 발족과 함께 용지를 공급받는 한편 OEC(주한경제조정관실) 원조로 직영인쇄시설을 갖추는 등 희망사가 원조의 예외지대는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상계』와 비교해, 대중지에 대한 원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 27) 송지영, 「권두언-새로 맺는 인연」, 월간 『희망』, 1955.4, 35쪽. 송지영은 이 「권두언」을 통해 자신이 “다시 붓을 들고 새로 맺는 인연이 잡지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잡지계가 이 나라 문화발전의 자취에 일찍이 보지 못한 성관을 이루어 독자가 많기로나 독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로나 오히려 군소의 신문을 능가”하고 있다는 말로 잡지가 언론출판의 한축임을 역설한다.
- 28) 「편집후기」, 월간 『희망』, 1955.11, 332쪽. “독자를 위한 독자의 잡지”가 자사의 사시

된 『주간희망』과의 역할 배분이 작용한 상호적 움직임이었다. 월간 『희망』의 독자 중심주의의 정도는 『주간희망』의 창간으로 인한 두 잡지간의 구획과 재배치가 고려된 결과이기도 했다는 말이다. 월간 『희망』의 민감한 시사(시국) 기사가 축소되거나 이월 및 폐지되었던 것도 신문과 잡지를 겸한 『주간희망』의 시사(시국)성의 강조와도 맞물린 월간 『희망』의 위상 재정립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따라서 월간 『희망』의 독자 중심주의는 초창기의 애독자 투고실과 펜팔을 겸한 애독자 통신란에서 애독자 문답실 및 국군장병란과 직장 문예란의 신설, 독자가 탐정이 되어 범인을 맞추는 인물 맞추기 사은품 증정 등의 독자란에 대한 대거 확충으로 귀결되었는데, 여기에 애독자 사진작품 현상모집과 총액 15만환의 거금을 내건 문예작품 현상모집은 “백만 독자의 환호 속에 비약적 발전을 보고 있는 본 희망지”<sup>30)</sup>의 대대적인 기획으로 선전되고 홍보되었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과 명예는 독자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인 동기로 작용하며,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대중지로 스스로를 표방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총 15만환의 거금이 달린 “명랑소설, 탐정소설, 엽편소설(퐁트), 실화·미담, 나의 생활공개-특히 전쟁미망인, 만화”의 문예작품 현상모집은 실상 월간 『희망』이 주력했던 코너들과 거울상을 이루고 있었다. 이 봉범도 지적했다시피 문예작품 현상모집의 당선자인 허문녕과 유은종

(社是)임을 표방한 이 『편집후기』는 이후 『동아춘추』의 창간사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좋은 잡지는 좋은 시민을 낳고 좋은 시민은 좋은 잡지를 낳는다”고 하는 월간 『희망』의 취지를 살린 창간사가 그것이다.

29) 『한국 최초의 본격적 주간지』, 월간 『희망』, 1956.8, 209쪽은 자매지 『주간희망』 광고를 실으면서 “신문적 잡지, 잡지적 신문”을 내세운다. 이를 위한 본지의 5대 지향으로 들고 있는 것은 “청신한 편집방향, 중요사건의 해설과 전망, 권위 있는 주간시평, 다채로운 문화·오락란, 자료를 위한 뉴스정리”였다.

30) 『총액 15만원 대현상! 문예작품모집』, 월간 『희망』, 1955.12, 48-49쪽.

은 이 흐름을 타고 주력 코너들의 필진으로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었다.<sup>31)</sup> 이에 따라 자연히 월간 『희망』의 시사(시국)성을 담당했던 『사회시평』과 『시사월평』은 『주간희망』의 『주간시평』과 『주간일지』 등으로 대체되거나 이월되었다. 이봉구가 1955년 12월 『을미년의 문단 이모저모』에서 말했던 “명랑소설, 『유머』 소설, 실화미담소설의 대량사태”<sup>32)</sup>가 월간 『희망』을 장식하게 된다. 명랑과 유머, 애화·비화·진기 등의 온갖 실화와 수기 등이 영화란의 대거 확충과 더불어 월간 『희망』의 대중 오락지로서의 면모를 보다 강화시켜갔다. 전후 월간 『희망』의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대중오락지로서의 성격과 위상은 『주간희망』의 창간을 즈음한 “영화와 취미 잡지” 혹은 “오락지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자체 표방의 캐치프레이즈로 응축되고 표방되어졌던 것이다.

월간 『희망』이 대중‘오락지’에 방점을 두는 사이, 잡지간의 출혈 경쟁 역시 극심해지고 있었다. 두 달이나 앞서 잡지가 간행되는 등 원조의 감소와 함께 경기 불황의 짙은 그림자는 엇비슷한 잡지들의 독자 확보와 유지에 사활을 걸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955년 ‘출판물에 관한 임시 조치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검열 논란은 이적(적성) 혐의뿐만 아니라 1957년 3월 29일 『주간희망』의 『숨 막히는 『에로』의 공세』에 의하면, “얼마 전 공보실에서 일부 잡지 출판업자를 소환하고 에로티즘을

31) 현상문에 당선작으로 허문영의 탐정소설 『결혼저주마』와 유은종의 엽편소설 『직업』이 월간 『희망』 1955년 6월호에 나란히 실렸다. 별도로 선정된 가작 네 편은 동년 8월호에 한꺼번에 게재되었다.

32) 이봉구, 『을미년의 이모저모』, 월간 『희망』, 1955.12, 97쪽. 이봉구는 “명랑, 『유머』, 야담소설이 천하를 휘두르는 듯한 것이 을미년의 풍경이었으나 참된 문학의 주류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문학 활동과도 무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행 현상에 불과하다고 진단한다. 대중문학(예)과 순수문학(예)을 구별하는 그의 양분법적 시각은 당대 문인들의 시각과 상통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말대로 신문소설을 위시해 잡지의 대중문학(예)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 이 비판이 그대로 월간 『희망』으로 되돌려질 것임을 그 또한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규탄”하는 풍기문란 혐의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더하고 있었다. 이는 곧 이어 밀어닥칠 1958년의 공안정국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성특집”부터 “표지가 그렇고 화보가 그러하며 삽화 잡문 기사”를 가리지 않는 에로 공세는 “에로잡지일수록 깨끗하게, 지성이나 교양 또는 대중잡지라는 명패를 들고 나오”<sup>33)</sup>는 실정이라는 낯선 공격은 어떤 잡지도 이 혐의를 쉽사리 피해갈 수 없게 했다. 정부당국의 시책과 보조를 맞춘 『주간희망』의 이 비판의 화살은 지성과 교양 혹은 대중잡지를 망라하고 모든 대중매체를 향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 온상으로 낙인찍힌 신문의 연재소설을 포함해 월간 『희망』의 강화된 대중성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매체 환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잡지 ‘희망’이 놓인 위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증면에 따른 지폭의 철저한 독자 중심주의는 이적(적성)과 풍기문란을 동시에 문제 삼는 정부당국의 잇따른 강경 조치 속에서, 민감한 시사(시국)성과도 이를 우회한 상업성과도 맞추기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정치시사로 나아가자니 이적(적성) 혐의가 걸리고 그렇다고 “대중오락잡지일 경우에는 대중심리의 포착이란” “고작 『에로』를 좋아하는 심리, 좀 더 엽기적인 것을 좋아하는 심리”에 “기름을 치고 불을 지르는가 하면 심지어는 부채질”(44)을 할 뿐이라는 소위 에로 공세의 풍기문란 혐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정한 지식, 취미, 연령 등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중학 3년 이상”<sup>34)</sup>의 독자층을 겨냥한 월간 『희망』의 이 시기 독자 중심주의는 학생잡지를 제외했던 초창기 편집 방침이나 노선과는 결을 달리했던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판매 전략’과도 상통하는 대중지의 선정성 논란이 이러

33) 「숨 막히는 『에로』의 공세」, 『주간희망』, 1957.3.29, 45쪽.

34) 「대중잡지의 현재와 장래」, 『경향신문』, 1955.9.15.



한 초창기와 달라진 월간 『희망』의 전성기를 관통하면서, 월간 『희망』의 존립기반을 역으로 뒤흔드는 상태를 초래하고 만다. 그래서였을까. 1955년 냉전의 북한 발 전언이 한국사회의 예로 공세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된다. 북한 김일성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월북 지식인 신남철이 이 공세에 앞장을 섰다. 그는 “멸망해가는 계급의 전망 없는 육감적 관능주의와 야비한 호색본이 청년 학생들과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말로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에 대한 추수와 침투를 강도 높게 비난하게 된다. 이 전범으로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남조선의 악명 높은 월간 잡지 『여성계』, 『신태양』, 『희망』을 비롯한 수다한 대중잡지”였다. 이 대중지들은 “미국식 생활양식의 선전자로서 미제의 사상침략의 구미에 맞는 내용”으로 킨제이보고서와 같은 “순전히 인간을 동물적 성행위의 권화로서만 취급”하고 “인민의 관심을 생활의 진실한 문제로부터 말초적인 흥미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센슈이슈 날리즘(흥분도발)”<sup>35)</sup>을 예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남한과 북한간의 상반된 체제 이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월간 『희망』을 위시한 수다한 ‘대중지’를 두고 오간 이 안팎의 공세는 휴간 공고 후 결국 속간되지 못한 『주간희망』의 폐간과 함께 월간 『희망』의 변화를

35) 신남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 『근로자』, 1955.11, 정중현 엮음, 『신남철 문장선집 II』,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317-318쪽에서 재인용. 여기에 대해서는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2010, 409쪽에서도 지적했던 바다. 신남철의 비판적 논조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북한 당국을 공통적으로 가로지른다는 사실은 전후 레짐의 특정한 조건과 맥락을 환기시킨다. 전후 레짐의 반공과 재건 담론은 향락, 방종, 퇴폐, 타락과 같은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을 부정시키고 이를 퍼뜨린 주범으로 대중잡지를 그 타깃으로 삼았다. 특히 여성의 성적 신체와 관련된 비생산성과 낭비 및 퇴폐와 타락은 이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의 질 나쁜 표본으로 대중잡지는 이를 전시함과 동시에 추방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신남철은 이러한 대중잡지의 모순적 양상을 파고들며 반공과 오락의 기묘한 결합을 비틀었던 셈이었다.

강제했다. 이것이 1958년 1월의 “건전한 대중교양지(종합지)”<sup>36)</sup>로의 방향 전환이었다. 지식인 잡지 내지 정론적 종합지로 불린 “『사상계』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최고 교양지를 자처한 동지가 변함없는 그 동일성격을 유지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사상계』의 부상에 대한 『주간희망』 1956년 6월 8일 『독자편지』는 월간 『희망』의 대중오락지에 대한 불만을 한축으로 『주간희망』이 시사종합지에 걸맞는 체재와 성격을 갖춰줄 것을 요구하는 또 다른 한축의 목소리였다. “전(前)소설 또 지금 연재중인 소설은 귀지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시시한 삼류기사는 용감히 삭제”<sup>37)</sup>해 달라는 독자의 이러한 강도 높은 주문은 대중지의 선정성 논란을 계기로 한 달라지는 잡지시장의 변화를 매개하고 있었다.

『주간희망』은 시사종합지로 반면 월간 『희망』은 대중오락지로 분화시켜 가려던 희망사의 1956년과 57년의 기획은 이처럼 극심한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좌초되고 말았다. 3장에서 다시금 논하게 되겠지만, 1958년 1월 월간 『희망』의 전면적인 쇄신과 변화는 이 어쩔 수 없는 매체 환경이 빚어낸 산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월간 『희망』의 최전성기가 대중오락지의 시기와 겹쳐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월간 『희망』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월간 『희망』은 종합지와 오락지를 오간 가변적이고 혼종적인 매체로서 존재했으며, 그 국면별 변모와 갱신은 1950년대 대중지의 부침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 발 “센슈이슈널리즘(흥분도발)”의 유포자로 낙인찍힌 대표적인 대중지로서 월간 『희망』은 전후 레짐의 반공과 재건 담론 및

36) 1958년 1월호를 계기로 월간 『희망』은 대중종합지와 대중교양지를 번갈아 표명했다.

대중교양지라는 표현은 『알려드리는 말』, 월간 『희망』, 1958.3, 81쪽을 참조.

37) 『독자의 편지』, 『주간희망』, 1956.6.8, 53쪽.

원조와 검열을 출판자본의 영리 추구의 오락성과 결부시키는 데 따른 모순과 긴장을 배태했으며,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 시도가 상징하는 공안정국의 도래 속에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되었음을 이어지는 3장은 설명해줄 것이다.

### 3. '낮익은 새로움', 전후 레짐의 반공과 오락의 기묘한 결합과 변주

1958년 체재와 노선을 일신한 월간 『희망』이 정간과 속간을 되풀이하는 사이, 『야담과 실화』는 “서울처녀 60%는 이미 상실?경이! 한국판 킨제이 여성 보고서”<sup>38)</sup>라는 신문광고로 철퇴를 맞았다. 신남철이 말한 킨제이보고서의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극히 평범하고 무의미하며 우연적인 측면들을 통계와 과학의 이름 밑에 과장하여 그것이 마치 여자의 생활의 전부인 듯 선전”한 “미제의 센슈이슈날리즘(흥분도발)”의 “퇴폐와 타락, 허무와 불안, 비관과 고민”(317)이 북한 발에 응답한 남한 당국에 의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정조준되는 형국이었다. 왜냐하면 공보실은 발매금지과 함께 폐간 조치라는 최강수를 두는 것으로 이를 불(위)법화했기 때문이다. 공보실의 행정명령이 내리기 전 국회의 문교위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불거진 『야담과 실화』의 1959년 신년호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절대로 윤락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잡지의 목차로만 논할 문제가 아”<sup>39)</sup>이라는 잡지사의 항변을 초래했지만, 이 양자 간의 힘겨루기는 이미 결판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정부통령 선거와 진보당 사건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

38) 『야담과 실화』 폐간, 『동아일보』, 1958.12.2.

39) 『음란한 내용 지적 문교위, 야담과 실화 정간을 요청』, 『경향신문』, 1958.12.2.

던 상황에서도 『야담과 실화』의 풍기문란에 대해서만은 대동단결이 이루어졌던 까닭이다.

여야 간의 차이 나아가 남북한 체제 간의 차이를 불문한 ‘대증지’에 쏟아진 이 풍기문란의 혐의는 “국민도의와 미풍양속의 저해”라는 일상의 규범과 질서를 토대로 “한국의 청소년층의 성생활에서 과학적인 통계의 제시로 해서 성윤리를 환기”하고 “성윤리의 정화를 위한”<sup>40)</sup> 것이었다는 동 잡지사의 해명과 반발을 무력화했다. 조봉암의 사형으로 귀결된 진보당 사건과 나란히 마치 한편의 해프닝과 같은 『야담과 실화』의 폐간 조치는 언론자유에 대한 시비로 번져가며 그 위기감을 고조시키게 된다. ‘군정법령 88호’라는 이미 사문화되었어야 할 미군정 시기의 출판물단속 법으로 출판경찰권을 동원해가면서까지 한 잡지를 아예 허가 취소하는 것은 발행주체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이자 일방적이고 가혹한 처사라는 동정을 수반한 재고 요청이 뒤따랐지만, 이 항변은 번번이 묵살되었다. 비단 잡지사뿐만 아니라 신문사도 동참한 이 비판의 기저에는 이승만정권의 언론자유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권력 남용이 가져올 지면의 위축과 폐색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sup>41)</sup> 의원 감소와 인플레 및 고공 행진하는 물가고 등으로 독자들이 떨어져나가던 상황에서, 당장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언론출판계의 위기감이 진보당 사건을 배경으로 『야담과 실화』의 폐간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낳았던 셈이었다.

월간 『희망』은 이를 즈음한 시기에 긴 휴지기를 갖고 있었다. 1959년 3월 다시 재출발의 의지로 속간하지만 이미 상당한 휴지기를 가진 이후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월간 『희망』은 1955년부터 이어

40) 『처분에 앞서 지도 육성술』, 『경향신문』, 1958.12.6.

41) 『출판물단속의 방법과 한계』, 『동아일보』, 1958.12.5.

지던 대중오락지의 면모를 1958년 1월을 계기로 건전한 대중교양지(종합지)로 파격적인 변신을 꾀했다는 점이였다. 하지만 이것이 애초부터 의도되었다거나 준비되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실화모집에 대한 취소의 말”이 잘 보여준다. 이 『사고』에서 “희망 12월호 26면에 『실화현상모집』을 공고한 바 이번 신년호부터 내용을 혁신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으며, “건전한 대중종합잡지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어 “잡지의 성격상 부득이 『실화』를 게재할 수 없게”<sup>42)</sup> 되었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직전인 12월호까지도 “실화현상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더구나 이를 다음호에 실을 예정이었음을 알리는 이 『사고』로 미루어보아도, 월간 『희망』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예기치 않은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이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기존논의에서 제대로 규명된 적은 없지만,<sup>43)</sup> 이 변화의 기저에는 『주간희망』의 폐간과 함께 희망사의 방계잡지들 중 가장 단명한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잡지인 1958년 2월 『혜성』의 창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혜성』은 “혜성과 같이 나타난 대중오락지의 결정판”<sup>44)</sup>을 모토로 희망사의 방계잡지들 중 유일하게 ‘오락지’를 과감하게 표방하며 창간된 잡지이기도 했다. 이 『혜성』의 창간이 역으로 월간 『희망』을 『주간희망』에 준하거나 더 능가하는 대중종합지(교양지)로 변모하게끔 만든 내적 동력이 되었는데, 아래 제시된 1957년

42) 『실화모집에 대한 취소의 말』, 월간 『희망』, 1958.1, 201쪽.

43) 필자는 필자의 역량이 미치는 한 기존논의를 살펴보았지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찾지 못했다. 우선 월간 『희망』에 대한 개별 논의가 원체 적다는 점과 대중잡지의 일부로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월간 『희망』과 『주간희망』은 필요에 따른 선택적인 인용에 그치거나 일부분만 부각되는 등의 편향을 면하기 어려웠다.

44) 『희망사가 보내는 또 하나의 거탄! 혜성과 같이 나타난 대중오락지의 결정판』, 『동아일보』, 1958.2.12. 『혜성』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신문 광고로는 2,3,4월호까지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희망사의 가장 단명한 잡지가 『혜성』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희망사의 잡지 목록에는 『혜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12월 목차와 1958년 1월 목차가 갖는 차이는 이 급격한 변모의 징표가 되고 있다.<sup>45)</sup>

<p>정비석, 순정소설, 호접몽          명우로, 지상코메디,          크리스마스·이브의 기적          안수길, 애정소설, 흥업          유선운, 해외기담, 보석절도인 영 재상집사          최인옥, 순정소설, 소녀상          임성길, 이면비화, 말썽 난 국제극장          배승훈, 스토리 스틸러,          처절한 독서독간 간첩          임옥, 이색 르포, 코리아의          이방지대 양공주가          M기자, 단독회견, 살인귀 김선경          박계주, 영화소설, 나 혼자만이          하순태, 은막염문, 13세에 꺾인          『헨판』의 정조          박본순, 비련애가, 불륜의 십자로          유정무, 해외실화, 살인귀 미계루          김장수, 비련소설, 이발사의 딸          김말봉, 애정소설, 길          박용구, 현대소설, 배반          박연희, 비련소설, 비련          조향남, 특집, 현대한국비련사          한호민, 진기실화, 『알레스카』의          황금광 시대          방민호, 애정생태, 불란서판 『킨제이』보고          해외인사공동집필,          특집, 세계흥·청등가 기행          갱생가화, 희망에서 절망으로          인생문답          K기자, 스타미행, 윤일봉의 24시간          주중녀·노경희·김동원,          비중비화(秘中秘話), 인기스타 팬레타 공개          목사균, 법창야화, 가짜 간첩의 행장기</p>	<p>권두언          황병준, 인플레는 모면하였는가          특집, 신문이란 이름의 폭군          백대진, 통화개혁의 이면과 그 후의 현실          외지, 미국의 방어와 미사일 개발          홍태식, 동북아동맹과 한국의 위치          김주홍,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모운숙, 자화상          고원, 검소하고 정다운 영국인          조봉순, 세계결혼풍속도          오제도, 대담, 나와 공산당          이일영, 우리 은행의 역사          최창봉, 미국과 일본의 『텔레비전』 견문          허백년, 영화와 헤밍웨이 『문학』          방민호, 15환의 재산을 위한 소송사건          함상훈, 내가 본 정치이면          알베르 카뮈, 부조리의 자유          이봉구, 문단외사          월평          신동원, 침묵의 혁명          유광렬, 필봉으로 살아온 40년          조세형, 3대 민의원 출입 시말기          특집, 고리채 망업지(亡業誌)          노희엽, 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그 반향          마해송, 오래 사는 것만이 잘난 것 아니다          이건학, 농촌은 와가화(瓦家化)할 수 있다          창풍자, 어지러운 말과 글          장병철, 공무원의 음성수입과 그 이면          이소향, 신문의 인생처방 시비          이봉래, 『오해하세요』가 오해받은 야화          영화          창작          특집, 4대 민의원 출마예정자의 정견과 인물</p>
---	--

(1) 1957년 12월 월간 『희망』 목차

(2) 1958년 1월 월간 『희망』 목차

위 목록은 속표지 뒤의 목차를 각기 정리해본 것이다. 실제 페이지와 무관하게 목차에서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가를 볼 때, (1)의 목차는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기사들로 전진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호가 '인기작가 단편소설 특집호'를 내긴 만큼 인기작가, 그 중에서도 1950년대 가장 핫한 작가인 정비석을 제일 첫머리로 놓는다. 실화, 비화, 야화, 가화 등등 식민지시기부터 대중지의 빠지지 않던 단골메뉴인 흥미 위주의 라벨화(labeling)가 유사 장르로 기능하며, 모든 기사와 이야기들을 선규정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에 비해 (2)는 그 라벨화가 사라진 대신 시사(시국)적 기사들이 대부분을 점한다. 통화개혁과 신문 특집 및 노동문제 등의 시사(시국) 기사들이 모두 그러한데, 여기에 월간 『희망』에서 사라졌던 권두언도 1958년 1월을 기점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1958년 1월호 「권두언」의 내용은 조봉암이 이끌던 혁신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였다.

진보당 사건을 앞둔 시점에서 월간 『희망』은 신년호 「권두언」을 혁신세력의 용공 혐의를 부각시킨 정부당국의 논조와 결을 같이 한다. “혁신세력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반공을 국시로 하는 한국의 헌법정신으로선 마땅히 경계”(31)해야 한다는 것이 그 중심 취지였다. 예정되지 않았던 건전한 대중교양지(종합지)로의 전환도 그렇고 첫 일성을 혁신세력에 대한 경고와 비판으로 일관한 것도 여러 모로 시사적이다. 『주간희망』뿐만 아니라 월간 『희망』에도 자주 얼굴을 비춘 조봉암이 지닌 혁신세력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혁신세력에 대한 비판은 곧 조봉암에 대한 거리두기가 아닐 수 없다. 월간 『희망』이 체재와 노선을 일신하면서, 이처럼 조봉암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은 그에 대한 기존의 우호적 색채를 지우는 일이기도 했다. 이와 연관해서 특별히 주목되

45) 월간 『희망』, 1957.12, 6-9쪽과 1958.1, 6-7쪽을 참조.

는 기사는 1957년 2월과 3월에 편집부 의뢰로 연재된 조봉암의 『특별기고-내가 걸어온 길』이었다. 비록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자로 투신한 그의 이력과 혁신세력의 대두 및 결집의 필요성을 담은 이 문제적인 글과 혁신 신년호의 첫 일성과의 격차는 크다. (상)·(중)·(하)로 기획된 이 글은 1957년 4월호의 (하)로 마감되었어야 했지만, “신춘혁신호”를 명분으로 (하)는 끝내 실리지 않았다.<sup>46)</sup> 직접적인 압력에서든 아니면 알아서 몸을 낮춘 것이든 이때부터 월간 『희망』에 드리운 유무형의 압력과 통제의 질은 그들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월간 『희망』은 전후 레짐의 한축인 “반공을 국시로 하는 한국의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국민대중의 자각을 촉구하고 강화해”(31)야 할 필요성을 조봉암의 혁신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가시화했다. 언론 본연의 사명이 ‘반공’에 있음을 되새기자는 이러한 월간 『희망』의 「권두언」은 “국민도의회와 미풍양속의 저해”라는 대중지의 선정성과는 거리를 둔 국시의 재천명과 동조로 ‘건전한 대중종합지(교양지)’로의 선회를 뒷받침했던 것이다. 전시와 전후를 잇는 전후 레짐은 반공과 재건을 통치원리로 한 위로부터의 교화와 계도를 정당화하게 된다. 전시의 폭력적 대치와 절멸의 경험에서 연원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즉자적이고 생리적인 공포와 적대가 자유와 반공의 등치 아래 자유를 반공의 틀 내에서만 인식케 하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일면이다. 월간 『희망』의 창간 동기와 연관된 김종완의 적치 3개월의 경험 역시 자유의 의미를 이러한 반공의 바운더리 내로 한정짓는 데 일조했다. 반공의 체제 이념과 제한적 자유가 짝을 이루는 이러한 지역적 냉전의 전후 레짐을 모태로 한 시대사적 사명감이 잡지 발행 자체를 문

46) 조봉암의 『특별기고-내가 걸어온 길』은 원래 (상), (중), (하)로 기획된 글이었다. 그런데 1957년 2월과 3월을 마지막으로 4월의 (하)는 끝내 실리지 않았다.



화(선전)사업의 일환으로 자부할 수 있게끔 한 동력이었음을 이 예기치 않은 변모는 역으로 일깨워주고 있었다.

1953년 1월 『결전의 새해 53년예의 희망』에서, 김종완은 “국민의 힘과 힘을 결속시킬 수 있는 문화선전사업”과 “조직적인 강력한 실천만이 우리가 희구하는 민족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sup>47)</sup>치 않는다는 전시의 사명감을 이미 선보인 바 있었다. 잡지명 ‘희망’은 바로 이 전시의 사명감과 결부된 문화주체의 주도적 역할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국토의 통일도 전시후방국민의 총력전예의 대열에 돌아오게 함도 모두 문화인의 선봉적인 역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 사람의 예술인은 십만 대군의 위력을 능가할 수 있고 호태(毫台)의 『크라비아』 인쇄기는 백문의 대포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로써 빛날 것을 확신”(12)해 마지않는다는 신념이 정초했던 것도 이러한 전시의 사명감이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전시 총력전의 공적 현실과 김종완의 적지 3개월의 사적 경험이 어우러지는 속에서, 문화(예술)인의 위상은 십만 대군을 능가하는 중요성을 부여 받게 된다. 문화주체의 존재증명과도 직결된 이러한 전시의 경험과 인식을 딛고 전후의 “밖으로 한국을 위요한 국제정세에 요운이 사라지지 아니하였고 안으로는 국토가 여전히 양단되어 있는 엄숙한 현실에 처”해 “모든 것을 통일에 집결시키고 모든 것을 경제재건에 결집”시킬 “정신적 무장”<sup>48)</sup>을 담당할 문화주체들의 자리가 지정되고 있었다. 영리와 수익성 본위의 출판 사업이 소위 한국사회의 국시인 반공 및 재건 담론과 결합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을 터, 반공 및 재건 담론의 계도성과 오락성이 버물린 수기와 실화 등의 자전적 고백담은 성과 스텔과

47) 김종완, 『결전의 새해 1953년예의 희망』, 월간 『희망』, 1953.1, 11쪽.

48) 김종완, 『실천적 용맹의 진작』, 월간 『희망』, 1955.1, 27쪽.

거짓과 비밀이 뒤섞인 채로 월간 『희망』의 지면을 장식하게 된다. 이러한 반공 및 재건 담론과 오락의 기묘한 조합과 절충이란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낯익은 새로움'으로 재무장한 것들이었고, 이 속에서 1950년대 대중지 간의 모방과 재조합의 각축전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지마다 주력한 코너가 따로 있었다는 이봉범의 견해는 경청할 만하지만,<sup>49)</sup> 이 차이가 각 대중지들을 가늠할 만큼 커다란 차별성을 지녔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실상 이 코너의 차이라는 것이 일정한 순환성과 반복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봉범이 『명랑』의 대표적인 코너로 꼽은 영화스토리의 경우 월간 『희망』의 희망지 상영화와 판박이였고, 『아리랑』의 만화, 고전스토리, 탐정물, 명랑소설도 김용환의 연재만화 『코주부』나 월간 『희망』의 창간호를 장식한 김내성의 장편연재소설 『운명의 거울』과 『탐정소설 20년사』 및 『궁정외사』 등의 역사물이나 명랑·순정소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기에 말이다. 일반 대중오락지의 “천편일률적인 동일 조류의 편집 방침으로는 독자들의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고, 따라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각자 독특한 센스와 테크닉”의 “새로운 독자분야의 개척”이 촉구되었던 것도 이러한 유사 코너들의 모방과 재조합에 있었다.<sup>50)</sup> 여기에 외지를 출처로 한 각종 스파이물이 철의 장막 저편의 음모와 파괴 및 공포와 불신을 자양분으로 하여 갖가지 기괴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이국적 볼거리들이 펼쳐졌다. 월간 『희망』에 한해 보자면, 본지독점과 이면비화를 타이틀로 한 세 번에 걸친 북한의 박헌영 숙청과 관련된 폭로

49) 후발 잡지들을 중심으로 한 독자 지향의 흥밋거리들의 특화 전략은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2010, 410쪽을 참조.

50) 윤경섭, 『출판계의 질적 향상을 기약』, 『동아일보』, 1956.1.10.

기사는 정보가 차단된 공산권 진영의 소식을 '묻지 마' 식의 불확실한 출처에 기대어 센세이셔널하게 각색한 전형적인 반공과 오락의 합작품이었다.<sup>51)</sup> 『주간희망』은 이를 또다시 『작주의 7대 뉴스』로 실어 나르는 월간과 주간의 분업 체계를 활용한 폭로성 가십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sup>52)</sup>

전 괴뢰중장 남도부의 김일성 고발과 폭로 수기도 이 연장선상에 있었다. 1955년 9, 10월호에 연속으로 실린 이 글은 유일한 『희망』 별책인 『해방십년』에 반복 게재되었다. 본명이 하준수인 남도부는 1954년 1월 군경에 체포되기까지 신출귀몰한 행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당연히 그의 체포는 큰 화제꺼리가 아닐 수 없었다. 월간 『희망』은 남도부의 체포 경위를 자세히 전하며 그의 반성과 참회 및 김일성에 대한 폭로에 그치지 않는 “괴뢰도당에서 선전 주장하는 자유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sup>53)</sup>가 있다는 전향 성명서를 전문 게재하게 된다. 한편으로 악명 높은 괴뢰 빨치산의 체포와 자유 대한의 가치를 고취하는 반공과 다른 한편으로 실화와 르포, 수기 류의 폭로성 가십이 한데 어우러진 강렬한 눈요기였다. 폭로와 고발을 겸한 이 반공 수기는 실제 남도부가 전향하지 않았으며, ‘인민공화국만세’를 외치며 사형되었

51) 박현영의 숙청과 관련된 월간 『희망』의 기사로는 손오공, 「박현영이 숙청되기까지」, 1953.9; 주암산, 「(본지 독점 최초 공개) 박현영 일파의 숙청이면비화」, 1956.9; 주암산, 「(본지독점 최초 공개) 박현영 일파 괴뢰법정에서의 진술, 제 3국을 통한 입수」, 1956.10; 이길, 「(미공개비화) 박현영은 이렇게 사형, 괴뢰법정의 연극 이면상」, 1957.3 등을 들 수 있다. 1953년 남로당 숙청이 1955년 박현영 숙청으로 마무리되기 까지 약 2년여 동안 월간 『희망』은 본지독점의 타이틀로 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제3국이라는 일본을 경유한 출처 불명의 소식들에 기댄 것이 많았다. 필명의 존재가 그러하거나 또 하나 희망사가 이처럼 일본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 동경의 희망사 지부가 설치되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희망사의 일본 지부 설치에 대해서는 「여적」, 월간 『희망』, 1954, 230쪽을 참조.

52) 「작주의 7대 뉴스」 중 “박현영 사형 언도 보도”, 『주간희망』, 1955.1.2, 9쪽.

53) 남도부, 「포악무도한 김일성의 죄악을 폭로함」, 월간 『희망』, 1955.10, 33쪽.

다는 사실과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북한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를 상찬한 그의 전향 성명서의 출처는 김일성의 당적 과오에 대한 날카로운 공개장과는 별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실제 공개장에 정체불명의 전향 성명서를 별다른 설명이나 언급 없이 하나로 짜깁기해 이것이 마치 남도부의 자전적 고백담인 양 만들어버리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묻지 마’ 식의 해외 스파이물들이나 탐정물과 배경만 다를 뿐 그 작동 기술과 효과는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원자력(탄)과 관련된 해외 스파이들의 암투상은 현대성의 표지인 과학기술과 지식에 반공의 의장을 두르고 거기에는 예로와 엽기를 뒤섞는 ‘묻지 마’ 식의 삼박자를 갖추고, 전후 반공과 재건 담론 및 오락의 ‘낯익은 새로움’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재활용되어졌던 것이다.<sup>54)</sup>

전시와 전후를 잇는 전후 레짐의 반공과 재건 담론은 낯익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오락을 가미하여 가볍고 재미있

54) ‘묻지 마’ 식의 외지에 출처를 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창간 2주년 기념호인 『주간희망의 이력서-105주간(週間)의 발자취』 중 김명주의 “모두 뜻 깊다”, 『주간희망』, 1957.12.27, 53쪽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녀는 자신이 교정부에서 외신부로 옮기면서 주로 “『타임』지와 『뉴스위크』지 등 외지에서 재미 있는 곳을 번역”하는 데 “외지의 국내 독자가 볼 때 실망을 살 수 있다는 약점이 있어 점차 기사를 외지의 직역이 아니라 『스토리』식 또는 해설식으로 이끌어”갔음을 토로한다. 즉 외지를 있는 그대로 번역했다기보다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들로 재구성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애초 기사의 출처를 모호하게 만드는 ‘묻지 마’ 식의 이야기가 생성되는 방식이다. 『세계를 휩쓴 소련의 스파이망』이나 『국제괴도실화』, 『크레믈린의 명의숙청』, 『세계기담』, 『세기의 수수께끼』, 『해외진기야화』, 『최신과학』, 『해외의 움직임』 등이 이 사례들에 해당한다. 반면 필자가 있는 세계시평이나 해외 정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덜하다. 월간 『희망』의 초창기 세계 동향의 필자로 활약했던 박경목과 임운은 신문기자의 날카로운 필봉을 살려 전문적인 해설과 식견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해외 소식은 김명주가 언급했던 비행접시와 같은 유사 과학에 기댄 잡지로 소비되어졌다. 스파이 담론과 냉전 과학간의 연루와 재구성성에 대해서는 공임순, 『냉전의 육화, 스파이의 비/가시적 신체 형상과 ‘최초’의 소재/미제 간첩단 사건』, 『현대문학의 연구』, 2015를 참조할 수 있다.

는 잡지시장의 소비품목으로 화하며, 건전함과 비속함의 경계선상을 오갔다. 전시의 폐허와 파괴의 참상이 아직 가시지 않은 전후의 가난하고 우울한 현실에서, 국가 통치성의 일환인 반공과 재건 담론은 출판자본의 오락적 볼거리와 접목하는 이중교배의 '낮익은 새로움'으로 대중지의 코너들로 재배치되거나 향유되어졌다. 이 경계선상에서 잡지명이 상징하는 '희망'이나 '명랑'과 같은 언표들은 전시와 전후의 힘든 현실을 상쇄하는 대중지의 매체 이념이 되어 식민지 말기와 마찬가지로 정부당국과 합법 내지 불법(위법)의 숨바꼭질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레짐의 매체 지형은 대중지의 이 건전함과 비속함의 허용치를 놓고 벌인 힘겨루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월간 『희망』이 선보인 종합지와 오락지의 벡터란 것도 알고 보면 1950년대 대중지의 이러한 매체 지형과 맞닿는 것이었다.

『야담과 실화』를 폐간 조치로까지 몰고 간 킨제이보고서가 갖는 폭발력은 건전함과 비속함의 경계선상에서 빚어진 일련의 참사로 볼 만하다. 미국 판에서부터 불란서 판과 한국 판에 이르기까지 킨제이보고서의 폭발력은 대중지의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건전함과 비속함의 경계선상에서 정부당국의 감시망에 걸리면 불법(위법)이 되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 성윤리의 정화와 경계라는 명목으로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탄력성을 띤 것이었다. 오락적 볼거리와 조합된 반공과 재건 담론은 그 수위와 정도를 조절해가는 협상과 타협의 장에서 당대적 화제와 논란을 자양분 삼아 이른바 '연성화'의 과정을 거쳤고, 대중지의 합법과 불법(위)법의 불확실한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좀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모방 속 차이와 경쟁을 벌였다. 이것이 1950년대 대중지의 존재방식이었다면, 전시와 전후 후방의 불안과 혼란을 매개하는 표상으로서 여성 섹슈얼리티가 지닌 위치는 대단히 문제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전시와 전후의 현실이 낳은 긴급한 생존의 필요성과 맞물린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이 '낮익은 새로움'의 이야기들을 길어내는 보고로 여성 섹슈얼리티를 문제 삼게 했음을 월간 『희망』을 위시한 대중지는 공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월간 『희망』은 1952년 5월 방인근의 「유엔공주님」을 필두로 1952년 10월 「20년 후의 유엔공주」 만화와 1954년 3월 양공주와 혼혈아의 문제 및 유한마담의 댄스홀과 계, '아프레갈'로 지칭되는 전후파의 방종과 퇴폐, 타락과 허영을 「나는 아프레가 아니다」와 같은 수기와 르포, 탐방으로 담아내거나 박인수 사건과 병행한 김광주의 “전전파, 전후파, 종합미래파”<sup>55)</sup>와 같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청춘해부도로 다양하게 전시했다. 이규창이 전후파 여성을 “육체파, 사춘파, 숙녀파, 유희파, 허영파”<sup>56)</sup>로 세분했던 것도 여성 섹슈얼리티를 통한 전후 한국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매개하고 전시하기 위해서였다. 여성 섹슈얼리티가 지닌 이러한 전시와 전후의 불안한 사회상은 이들이 표상하는 신남철 식의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을 담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반응과 의미를 증첩하게 했는데, 이를테면 월간 『희망』은 한편으로 영화 코너 등을 활용해 이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을 여성 섹슈얼리티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부추겼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전시와 전후 후방의 퇴폐와 방종의 난맥상을 여성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하여 좌악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여성 섹슈얼리티를 중층 매개한 이러한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은 전후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서구화(미국화)되는 데 따른 경계와 우려를 반공 및 재건 담론과 결합시킴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설파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한편으로 미국식의 자유

55) 김광주, 「전후 세대 남녀들의 삼(三) 형태」, 월간 『희망』, 1955.11, 124-125쪽.

56) 이규창, 「(특집) 성모랄은 어디로」, 월간 『희망』, 1957.7, 112-114쪽.

민주주의의 기표로 향유하는 방식이자 다른 한편으로 전후 불안정한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방종과 남용의 기표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기도 했다.

1950년대 전후 사회를 풍미한 자유부인의 초상과 맥을 같이 하는 유엔마담(부인)이나 양공주와 전후파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실명소설이라는 이름의 『야구왕 이영민의 비극』<sup>57)</sup>으로 실화가 가미된 소설로 만들어지거나 『경찰순찰기동대 심야 미행기』<sup>58)</sup>와 같은 국가 치안행위의 일부로 전시되거나 했다. 나아가 전시의 글로벌한 남성 동맹 체제가 구축한 미군과 미군 기지의 현존으로 인해 야기된 전후 후방의 실상은 여성 섹슈얼리티를 가로질러 댄스홀과 카페, 재즈와 고급 요정 및 기지촌뿐만 아니라 더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증거인 혼혈아를 문제 삼게 했다. 소위 GI 베이비로 불리는 이 혼혈아들은 전후 레짐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인 미군과 미군 기지가 상존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사회정치적·문화적 문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 혼혈아들은 전후 한국사회의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자 여성 섹슈얼리티의 과잉이 초래한 불유쾌한 현실로 간주되며, 이들을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으로 입양하는 추방과 배제를 최우선적인 방침으로 삼아 전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비극으로 소비하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시선과 태도를 견지하게 했는데, 이 와중에 월간 『희망』을 장식했던 사건들 중 하나가 혼혈아 존·요한의 납북 미수 사건이었다.

월간 『희망』이 전하는 혼혈아 존·요한의 이야기는 이렇다. 철원 남방 휴전선 근방에서 붙잡힌 김영룡과 함께 있던 인물은 다름 아닌 “미인계(美人界) 혼혈아”<sup>59)</sup>인 3세 존·요한이었다. 김영룡은 미군을 아버지

57) 백조, 『(실명소설) 야구왕 이영민의 비극』, 월간 『희망』, 1956.8, 112-123쪽.

58) 『경찰순찰기동대 심야 미행기』, 월간 『희망』, 1956.11, 94-99쪽.

로 둔 혼혈아를 데리고 월북하면 상금도 주고 소련에 유학할 수 있다는 접선 간첩의 선전에 넘어가 자신이 봉사하러 다니던 고아원 원생 존·요한을 유괴해 북한으로 막 넘어가려던 참에 감시병에게 붙잡힌 것이었다. 이 존·요한의 아버지는 춘천에 주둔하는 미군 하사관이었고 엄마는 양공주였으며 부모에게서 버려진 존·요한은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중 김영룡의 유괴 대상이 되었고,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던 김영룡을 따라 별다른 의심 없이 휴전선 근방까지 동행했다는 것이 월간 『희망』의 「붉은 거미줄에 걸렸던 혼혈아」의 사건 요지이다. 월간 『희망』은 단독 회견의 형식을 빌려 이 기사를 5면에 걸쳐 내보냈다. 여기서 GI 베이비, 즉 “미인계(美人界) 혼혈아”인 존·요한은 ‘붉은 거미줄에 걸렸던 혼혈아’라는 제목이 상징하듯이 붉은 마수의 손아귀에 언제든 걸려들 수 있는 취약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존·요한은 그를 피었던 간첩 김영룡만큼이나 땀에 빠지기 쉬운 한국사회의 불안요소로 항상적인 감시와 주의를 요하는 사회의 암흑면을 상징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부산물”이자 “숙명의 혼혈아”(94)인 전후 후방의 이 불청객들은 가난과 소외에 시달리던 김영룡을 포섭한 소위 “백두산 사십팔호”(96)와 같은 남한 전역의 암약 간첩들의 일차적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컸다. 북한 발 신남철의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의 중핵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도 미군에게 육체를 바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96)의 움직임일 수 없는 물적 증거로 이들 혼혈아들은 “북한 괴뢰도당들이 북한여성들을 강제로 중공군과 결혼시키고 있”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즉 “대차적인 선전”(96)의 호재료가 될 여지가 높았던 것이다. 전후 레짐의 미군과 미군 기지의 실재하는 현존과 정비레하는 이러한 혼혈아의 양산은 정작 미군과 미군기지 자체가 아닌 여성 섹슈얼리티의 과잉으로 그 문

59) 「붉은 거미줄에 걸렸던 혼혈아」, 월간 『희망』, 1956.12, 94쪽.



제의 소지가 되돌려졌다. 여성들의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섹슈얼리티의 과잉이 이러한 환영받지 못하는 혼혈아들의 진원지가 되어 경계와 단속의 시선이 쏟아지고 집중되었던 셈이었다.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이 여성 섹슈얼리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 이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을 구분하고 분할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것이 미국을 구심점으로 한 지식인과 지배엘리트들의 해외 시찰과 교육, 견문과 기행 등의 이른바 고급문화와 차별화되는 하위문화로 표상되는 질 낮은 아메리카니즘의 재분할이었다. 전후 레짐의 반공과 재건 담론을 위협하는 이 질 낮은 아메리카니즘의 하위문화는 ‘코리아의 이방지대’로 표상되는 예외공간에 대한 르포와 탐방 기사의 조명 아래 정화되지 않는 자유와 욕망의 섹슈얼한 분출구로 소구되거나 사회악의 온상으로 치부되거나 했다. 온갖 범죄와 율육과 사치와 허영이 판치는 ‘코리아의 이방지대’인 이곳에서 “듣기에도 몹서리쳐지는 치외법권”<sup>60)</sup>의 예외적인 존재들도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이 불순한 섹슈얼리티가 난무하는 치외법권의 예외지대는 또한 『세칭 제주도 여공비의 비련기』와 같은 비(불)법한 존재인 간첩들의 음습한 활동 무대이기도 했다.<sup>61)</sup> 이 제어되거나 규율되지 않는 비(불)법한 존재들이 확보하는 섹슈얼한 현장을 무대 삼아 월간 『희망』을 포함한 대중지들은 대중의 관음증적 시선을 자극할 볼거리와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했던 것이다.

“대중잡지가 사회교육의 교재 역할까지 할 것까지”는 바랄 수는 없다 해도 “사회풍조의 퇴폐를 조장하는 독소적인 매개물로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sup>62)</sup>는 불편한 심기에 담겨 있던 것도 반공 및 재건 담론과 오

60) 임옥, 『코리아의 이방지대』, 월간 『희망』, 1957.12, 216쪽.

61) 조순애, 『세칭 제주도 여공비의 비련기』, 월간 『희망』, 1957.7, 157-159쪽.

략적 볼거리의 조합과 변용의 기술이 만들어내는 건전함과 비속함의 모순적 양상이었다. 건전함과 비속함의 경계선상에서 그 일탈의 유희와 볼거리를 한껏 전시하면서도 이를 비판하고 경고하는 이중의 스탠스는 1950년대 대중지의 존재론을 규정하며, 곧 밀어닥칠 대중지의 미래를 또한 예고하고 있었다. 1958년 1월의 획기적인 편집 노선과 체재 변경에도 “대중잡지와 종합잡지의 중간”에서 “갈팡질팡하여 두서를 차리지 못”<sup>62)</sup> 하고 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한 채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월간 『희망』은 이런 점에서 1950년대 대중지의 운명 그 자체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 4. 잡지 ‘희망’을 통해 본 1950년대의 시대상-결론을 대신하여

‘준전시-전시-전후’를 잇는 한국사회의 뒤늦은 시차의 지역적 전후는 당대적 매체 지형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 일본이 이미 전후는 끝났다고 선언하던 때, 한국전쟁을 갖 치른 한국은 이제 전후가 본격 가동되고 있었기에 말이다. 전시의 압도적 경험과 인식이 잡지 ‘희망’의 창간 계기를 깊숙이 규정했음을 이 글은 1-2장에서 살펴보았다. 전시 총력전을 근간으로 한 전후 레짐은 반공과 재건 담론을 중요한 통치원리로 내재화했고, 이 ‘전후 레짐’과 연동된 대중지의 매체 지형은 영리 분위기를 잡지 보국의 반공과 재건 담론으로 방어하거나 순치 내지 절충하는 부단한 운동을 보여주었다.

군사 정치적으로 동맹의 하위단위, 즉 요시미 순야(吉見俊哉)의 표현을 빌리자면 위성국가로 편제된<sup>64)</sup> 한국사회는 전시의 군사력과 후방의

62) 강영수, 「대중잡지의 위기 하」, 『경향신문』, 1957.7.22.

63) 「종합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동아일보』, 1958.1.30.

원조로 일상의 차원에서 아메리카니즘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 발 신남철의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이 겨냥했던 것도 이러한 전후 아메리카니즘의 광범위한 침투와 추수에 다름 아니었다. 이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의 적극적인 유포자로 낙인찍힌 월간 『희망』을 위시한 대중지들은 건전함과 비속함의 경계선상에서 신남철이 비난했던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을 매개하고 재생산했음을 이 글의 3장에서 지적했다.

이를 위한 매체 전략이 '생활의 아메리카니즘'을 구분하고 분절하는 위계화의 방식이었다. 이른바 고급문화의 좋은 아메리카니즘과 하위문화의 질 낮은 아메리카니즘을 분할하는 이러한 위계화에 따라 지식인과 지배엘리트들의 시찰과 견문 등을 한편으로 더 직접적이고 더 감각적인 여성 섹슈얼리티가 전시되고 상연되었다. 잡지 '희망'도 이러한 하위문화의 실태들을 르포, 수기와 실화, 고백, 탐방, 연재소설과 만화 등으로 담아냈음은 물론 사회의 암흑면을 조명한다는 취지 아래 독자 획득의 방편으로 삼았다. 따라서 월간 『희망』을 위시해 대중지들의 건전함과 비속함의 차이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것이었고, 풍기문란의 혐의 또한 비껴가기 힘들었다. 정부당국과 합법과 불법(위법)의 줄다리기를 벌인 잡지 '희망'의 존재방식은 곧 대중지의 존재방식이기도 했음을 이 글은 재차 강조하면서, 전시와 전후를 잇는 한국사회의 변모상도 이와 연관되어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 글은 여전히 해명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다.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를 기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64)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냉전체제와 자본의 문화』, 허보운 외 옮김, 소명출판, 2013, 78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희망』, 『주간희망』, 『야담』, 『여성계』, 『아리랑』, 『명랑』, 『신태양』,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 2. 논저

- 강영수, 「대중잡지의 위기 하」, 『경향신문』, 1957.7.22.
- 고 은, 『1950년대 그 폐허의 문학과 인간』, 민음사, 1973.
- 고정일, 『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 공임순, 「냉전의 육화, 스파이의 비/가시적 신체 형상과 ‘최초’의 소재/미제 간첩단 사건」, 『현대문학의 연구』, 2015, 507-564쪽.
- 김근수, 「출판계의 새 출발시대의 잡지개관(1950.6.25-1960.4.19)」,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 영산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3.
- 김명주, 「모두 뜻깊다」, 『주간희망』, 1957.12.27.
- 김종완, 「희망지 창간 일주년에 제하여」, 월간 『희망』, 1952.7.
- \_\_\_\_\_, 「속간에 즈음하여」, 월간 『희망』, 1962.1.
- \_\_\_\_\_, 「실천적 용맹의 진작」, 월간 『희망』, 1955.1.
- \_\_\_\_\_, 「난중출판잡기(亂中出版雜記)」, 『출판문화』, 1986.6.
- 남도부, 「포악무도한 김일성의 죄악을 폭로함」, 월간 『희망』, 1955.10.
- 송지영, 「권두언 새로 맺는 인연」, 월간 『희망』, 1955.4.
- 신남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 사상의 침식」, 『근로자』, 1955.11.
-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2016, 158-189쪽.
-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냉전체제와 자본의 문화』, 허보윤 외 옮김, 소명출판, 2013.
- 윤경섭, 「출판계의 질적 향상을 기약」, 『동아일보』, 1956.1.10.
- 이두용, 『현대한국출판사 1945-2010』, 문예출판사, 2015.
- 이무영, 「권두언-소금장사 군상(群像)」, 월간 『희망』, 1954.9.
- 이봉구, 「올미년의 이모저모」, 월간 『희망』, 1955.12.
-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상허학보』, 2010, 397-454쪽.
- 조봉암, 「특별기고-내가 걸어온 길」, 월간 『희망』, 1957.2-1957.3.
- 조풍연, 「단행본·잡지 등 범출판계」, 『출판문화』, 1975.6.
- 천정환, 『시대의 말 육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 최덕규, 『한국잡지백년 제3권』, 현암사, 2004.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 100년』, 한국잡지협회, 1995.

\_\_\_\_\_, 『한국잡지 45년사』, 한국잡지협회, 1998.

“Memo”, *Korea Program P-61 Media Publications Womens World*, Box P-061, The Asia Foundation, Hoover Institution Archives.

佐藤卓己, 『『キング』の時代』, 岩波書店, 2002.

## Abstract

### The Postwar Regime and the Status of the Magazine '*Huimang(Hope)*' in the 1950s

Kong, Im-Soon(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magazine in the context of the 1950s. The magazine 'Huimang(Hope)' is an expression that encompasses *Huimang(Hope)* with *Weekly Huimang(Hope)*. I combined these two magazines and referred to them collectively as 'Huimang(Hope)' because they were different from produced by Hope Publishing Company the other magazines. In this paper, I approached the magazine 'Huimang(Hope)' in a contemporary context and meaning, specifically focusing on *Huimang(Hope)* which was launched in July 1951 and *Weekly Huimang(Hope)*, based on the explanatory code of the postwar regime.

The postwar regime is the term I assume to refer to the articulation and connection that led to 'a quasi-state of war-war-postwar'. The postwar regime is also a concept that signifies the particularity of Korean society in the 1950s, which was undergoing a time lag in comparison with neighboring Japan, a colonial ruler and defeated nation, which declared in 1955 that "the postwar period is over". The postwar regime of the 1950s intertwined the global Cold War with the regional postwar being a time lag, anti-communism, reconstruction discourses, and the governance of aid and censorship which created contradictions and tensions by pursuit of profits of publishing capital. The central point of Chapters 1 and 2 was that the transformation and renewal of *Huimang(Hope)*,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mass entertainment magazine, should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postwar regime.

Despite the fact that the magazine 'Huimang(Hope)' was published throughout the 1950s, it has not been thoroughly reviewed due to its limited accessibility. In chapter 3, the arrangement of the corners and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were examined based on the discussions presented in Chapters 1 and 2. The criticism of Shin Namcheol's "Americanism of life style" in North Korea focused on *Huimang(Hope)* with *Shintaeyan* and *Yeosunggye(Woman World)* as notorious magazines. The

*Huimang(Hope)* was labeled as an active distributor of the "Americanism of life style" from North Korea because it stimulated the enthusiasm and desire for the Americanism of its readers. However it also mediated and exhibited female sexuality as postwar issues caused by the presence of the US Armed Forces and Army base in Korea, which was expanded for the war. In Chapter 3, I found that the magazine 'Huimang(Hope)' similar to other popular magazines used a media strategy in which the rapid Americanism of postwar Korean society divided the negativity of the subculture that was associated with excess of female sexuality into the high culture of so-called intellectuals and power elites. In Chapter 4, I concluded that this transformational aspect of the magazine 'Huimang(Hope)' was a way of existence of the popular magazines in the 1950s associated with the postwar regime.

(Key Words: *Huimang(Hope)*, *Weekly Huimang(Hope)*, postwar regime, anti-communism and reconstruction discourse, Americanism of life style, aggressive flow of erotic, mixer, US Armed Forces and Army base in Korea, female sexuality, U.N. Madam, Apres-girl)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4일